

# 사회지표로 본 ‘아동의 삶’

## 1. 서 언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아동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특성은 무엇이며 사회가 그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아동의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글은 1995년도에 개편된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연구에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별지표를 원용하여 아동의 삶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鄭京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2. 사회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현황

### 가. 아동인구

인구추계에 의하면 1997년 현재 18세 이하 아동은 약 13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인구의 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22.3%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출산력의 저하로 인구구조가 선진국형인 주발(Bowl)형태로 변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인구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995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총가구중 미성년가구는 90,194가구로 전체가구의 0.7%이며, 편부모가구의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나. 가족생활

아동의 안녕을 위해서는 양친이 생존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것이다. 1995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총가구중 미성년가구는 90,194가구로 전체가구의 0.7%이며, 편부모가구의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25%)이나 스웨덴(18%) 등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이 양친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고 있다.

다. 노동

아동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적자본의 개발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동인구중 생산연령인구인 15~19세 연령층의 인구규모는 1980년의 452만명보다 감소하였고,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1.9%에 불과하며, 85%가 학업에 종사하고 있다. 1985년 및 1990년과 비교하여 볼 때 교육수준의 증대에 따라 이 연령군의 학업중인 인구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한편, 실업률을 보면 전체실업률(2.0%)보다 월등히 높은 8.2%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경제활동실태

(단위: 명, %)

연도	15~19세 인구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가사	학업	기타		
			참가율	실업률					
1985	4,051,000	711,000	632,000	17.6	79,000	11.1	107,000	3,173,000	61,000
	(100.0)		(15.6)		(2.0)		(2.6)	(78.3)	(1.5)
1990	4,436,000	663,000	611,000	14.9	53,000	8.0	74,000	3,616,000	84,000
	(100.0)		(14.6)		(1.2)		(1.7)	(81.5)	(1.9)
1995	3,715,000	441,000	405,000	11.9	36,000	8.2	61,000	3,152,000	61,000
	(100.0)		(10.9)		(1.0)		(1.6)	(84.8)	(1.6)

자료: 통계청, 『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1996.

---

## 라. 교육

아동에게 교육기회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를 취학률 및 진학률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연령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5세 취학률이 42.4%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중심이 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취학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동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 보호아동까지 포함하면 매우 높다. 그러나 16세아동의 취학률에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즉, 초등학교 이후 교육은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전 교육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매우 높으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아직 낮은 55% 수준이다. 따라서 고졸자의 경우 교육기회 미충족률이 81.6%에 달하고 있으며 주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절반(47.5%)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입학시험에서의 실패(21.9%)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 1,966달러, 중등 4,285달러, 고등학교 4,856달러로 OECD 회원국의 1993년도의 초등 3,138달러, 중등 4,181달러, 고등 7,457달러에 비하여 초등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투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초등은 공교육비의 81%, 중·고등은 42~43%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13세학급의 경우 49명으로 미국의 23명 일본의 31명에 비하여 매우 많다. 또한 교원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33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2명으로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교육의 효과는 중퇴율과 학교생활만족도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중퇴율은 1995년도 현재 중학교 1%, 고등학교 2.4%로 고등학교가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또한 교육통계연감에 의하면 가정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퇴는 감소하는 대신 1990년대부터는 기타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중퇴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매우 높으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아직 낮은 55% 수준으로 고졸자의 경우 교육기회 미충족률이 81.6%에 달하며, 주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반(47.5%)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교육실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연령별 취학률 <sup>1)</sup> (%)	5세	42.4	81.0	96.2	102.0	61.2
	16세	93.4	95.4	96.4	96.1	96.2
진학률(*96)(%)	중학교	99.9	-	-	-	-
	고등학교	98.9	-	-	-	-
	대학교	54.9	-	-	-	-
고졸자의 교육기회 미충족률(%)		81.6	-	-	-	-
1인당 교육비(\$)	공교육비(*96)					
	초등학교	1,966(167만원)	3,138 <sup>2)</sup>	-	-	-
	중학교	4,285(364만원)	4,181	-	-	-
	고등학교	4,856(412만원)	7,457	-	-	-
	사교육비(*94)					
	초등학교	135만원	-	-	-	-
중학교	153만원	-	-	-	-	
고등학교	176만원	-	-	-	-	
학생수(명)	학급당 13세 학급	49	23	31	-	-
	교원당(*94)					
	초등학교	33.2	-	19.2	19.6	12.5
	중학교	26.8	-	16.2	13.7 <sup>3)</sup>	10.9
	일반고등학교	22.4	-	15.8	-	14.6
중퇴율(%)	중학교	1.0	-	-	-	-
	고등학교	2.4	-	-	-	-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93) <sup>4)</sup> (%)		35.1	-	-	-	-

주: 1) 한국은 1995년도, OECD국가는 1994년도 자료임.

2) 1993년도 현재 OECD국가의 평균임.

3) 프랑스는 중·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음.

4) 중·고등학생중 대체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6.

OECD, *Education Indicator*, 1996.

#### 마. 신체발달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학생들의 신장, 체중, 흉위는 물론 체질량지수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아동기에 형성된 체중과다는 성인기의 체중과다로 이어져 만성질환 이환율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자료에 기초해서는 평균 체질량지수만 제시되고 있어서 아동의 비만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는 과다체중으로 간주된다) 아동의 체중과다율은 1970년대에는 2~3% 정도에서, 80년대 중반에는 평균 10% 정도를, 1990년대에 와서는 15%내외를 보여 최근 10년동안 체중과다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체중과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체중과다율은 1970년대에는 2~3% 정도에서, 80년대 중반에는 평균 10% 정도를, 1990년대에 와서는 15%내외를 보여 최근 10년동안 체중과다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표 3. 체격조건

	6세 <sup>a)</sup>		12세 <sup>a)</sup>		15세 <sup>a)</sup>		15~19세 <sup>b)</sup>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신장(Cm)	119.4	118.4	152.6	153.2	168.8	158.9	172.0	161.0
체중(kg)	22.8	22.0	44.6	45.4	59.1	52.8	61.0	52.0
흉위(Cm)	59.1	57.5	74.2	76.5	83.5	82.0	-	-
체질량지수(평균)	16.0	15.7	19.2	19.3	20.7	20.9	8.0 <sup>d)</sup>	3.0
주관적 비만(% <sup>2)</sup>	-	-	-	-	-	-	15.1	34.9

주: 1) 체질량지수{체중/(신장)<sup>2</sup>}가 25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 자신의 체중이 신장에 비하여 과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임.

자료: a)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보건의료행태』, 1995.

15~19세 연령군의 경우 객관적인 체중과다율은 남자에게서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비만율은 여자가 더 높다.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체격조건이 '날씬함'에 맞추어져 있기 때

우리나라에서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즉,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가 여성으로 하여금  
체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갖게 하여 무분별한 결식과 다이어  
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정보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시설이 설치되  
어 있고, 1993년에 이미 다섯 집에 한 집은 컴퓨터를 갖추고 있  
다. 그러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의 1995년도 조사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수용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용 컴퓨터  
사용능력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의 29%가 아직도 ‘컴맹’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사. 아동복지

우리나라에서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즉,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요보호대상 아동은 1995년 현재 연간 4,576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약 42%가 가출로 인한 것이며, 그 다음이 미  
혼모의 아동이다. 이중 62%가 시설보호되고 있고 위탁보호는  
11%, 입양은 10%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요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단위: 명, %)

	계	발생유형별아동수				보호내용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가출아	시설 보호	위탁 보호	입양	기타
아동수	4,576 (100.0)	1,227 (26.8)	1,285 (28.1)	149 (3.3)	1,915 (41.8)	2,819 (61.6)	505 (11.0)	472 (10.3)	780 (17.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한편, 정부는 가구의 실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만 20세 이하  
의 소년·소년들을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하여 생활보조를 하

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의 52%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30%가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표 5.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단위: 명)

	계	아동수		재학별				
		세대주	세대원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소년·소녀가장세대	15,118	8,107	7,011	124	2,914	5,261	4,392	2,42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여성통계연보에 의하면 6세 이하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수탁률은 1994년 현재 14.7%에 머물고 있어 절대적인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인 보육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5년사이에 보육시설수와 보육아동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통계연보에 의하면 6세 이하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수탁률은 1994년 현재 14.7%에 머물고 있어 절대적인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현황

(단위: 개소, 명)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1991	3,670	89,441	503	3,717	1,217	36,099	19	712	1,931	15,613
1996	11,380	383,094	1,063	84,529	5,517	238,925	114	3,462	4,686	56,17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 아. 문화 및 여가활동

과도한 수업시간과 공부부담으로 인하여 인성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문화활동의 향수의 수준이 매우 낮다. 한국방송공사에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기초하여 1995년에 실시한 아동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생활시간구성을 보면 학업에 소요하는 시간이 평일의 경우 10~15세 연령군은 8시간 31분, 16~19세

과도한 수업시간과 공부부담으로 인하여 인성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문화활동의 향수의 수준이 매우 낮으며, 여가활동에 소요하는 시간도 2시간 이하로서, 여가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령군은 9시간 5분으로 하루의 1/3 이상을 학업에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생활필수활동을 제외한 시간의 활용을 보면 TV시청에 소요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신문·잡지·책을 읽는 시간은 30분 이하인데 비하여 TV시청은 4~5시간이며, 여가활동에 소요하는 시간도 2시간 이하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들이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고급문화를 별로 접하지 못하는 등 편식이 심하며 여가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을 살펴본 한 조사에 의하면, 비교적 인쇄물과의 접촉은 빈번하여 지난 1달동안의 교양서적 독서율은 75%, 일간신문 정기구독은 72%인 반면, 60% 정도가 1년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연극, 클래식 음악회의 경우는 2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표 7. 지난 1년동안의 각 항목별 문화 및 여가활동 현황

문화 및 여가활동	비율(%)
교양서적 독서 <sup>1)</sup>	75.4
공공도서관 이용	51.7
일간신문 정기구독 <sup>1)</sup>	71.7
영화관람	67.2
연극관람	20.5
클래식 음악회	21.2
외국문화유적 전시관람	33.7
박물관 관람	64.2
미술관 관람	53.5

주: 1) 이들 각 항목은 지난 1달동안의 응답임.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의 세계화 수준에 관한 연구』, 1995.

자. 범죄현황과 주관적 안전감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



소년범죄는 인구 1만명당 범죄인원이 1993년 현재 75명으로 1985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도 대비 20%가 증가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93년도 현재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안전감에도 반영되어 15~19세 연령군의 60%내외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보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장소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불의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이들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다.

불의의 사고 또는 범죄로부터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및 학생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이 건전한 사회성원의 육성이라고 하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 8. 범죄현황과 주관적인 안전감(1993)

(단위: 명, %)

	소년범			학생범		주관적인 안전감 <sup>1)</sup>	
	소년범죄 인원	인구 1만명당 범죄인원	총범죄에 대한 구성비	학생범 인원	전체소년 범에 대한 구성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야간보행하기에 두려운 곳 있음
	110,604	75.02	6.4	66,074	59.7	60.3	57.1

주: 1) 1991년도 15~19세 연령군에 대한 것임.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의 비행억제의 인식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1996.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3.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아동의 삶’의 현황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삶의 중심은 학업이며, 적절한 제문화활동 등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복지의 수준이 낮다. 둘째, 불의의 사고 또는 범죄로부터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및 학생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이 건전한 사회성원의 육성이라고 하는 고유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동의 체중과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비만율이 매우 높다. 넷째, 초등학교 이후 교육에 비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다섯째, 대다수의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

아동교육의 초점을  
전인교육에 둔과  
동시에  
문화복지자본을  
개발하여 전인적인  
인성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에 주안점이 두어져야만 현재의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의 초점이 전인교육에 두어짐과 더불어 문화복지자본을 개발하여 아동의 전인적인 인성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영양 및 보건의식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보호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의 활성화 및 결연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보건복지포럼』 4월호

### 이 달의 초점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김행진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 정기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방향과 과제 • 권선진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 방안 • 박윤서

### 정책분석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 장영식

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 • 노용환

OECD의 사회보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 고경환